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시렵니까?

치과대학 치의학과 임창윤

지난 주 나는 모처럼 내가 재직했던 대학에 갔다가 친근하게 지내던 후배교수 방에 들렀었다. 오랜만에 만나서 환담을 나누었다. 그런데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이 후배교수가 나에게 “선생님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아닌가.

나는 갑자기 질문을 받고서 잠시 당황하였다. 무슨 말로 어떻게 대답을 하여야 할 지 얼른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망설였다. 그러다 “언젠가는 그만 두어야지” 하면서 대답을 대신하였다.

나는 대학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얼마 동안은 집에서 쉬다가 지금 서울 시내 변두리에서 조그마한 치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어떤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후배 치과의사가 운영하던 것을 나보고 자기가 운영하던 치과를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하기에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맡아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여 현재까지 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하는 일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매일 아침마다 정시에 대학에 출근을 하다가 퇴임을 하고 난 다음 날부터 지루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정년퇴임한 다음 날 나는 정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있으려니 갈 곳이 없어졌다. 마음에 여유를 갖고 조간신문을 다 보고, 또 느긋하게 앉아서 아침 텔레비전도 다 보았다.

아침 10시 30분이 지나고 있었다. 무료하다. “오늘 하루를 무엇을 하고 지내야 하나?”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니 마땅한 소일거리가 없다.

집사람은 분주히 무엇을 하고 있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내다 버리고, 집사람은 하는 일이 많았다. 나는 그냥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서 눈만 굴리며 아내가 움직이는 모습만 보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무슨 잔소리나 안 나올까 하고 은근히 마음 한 구석이 쪼이기도 한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 보아도 내가 이 집안에서 할 일이 없다. 집안의 일이라고는 아내가 이제까지 다 처리하여 왔고 사실상 나는 밖에 나가서 내 할 일이나 했지 집안에서 나는 아무 것도 내게 소임이 되는 일이 없었다. 조금 있다가 아내는 동회에 가야 한다고 나가버렸다. 나는 혼자 집안에 앉아서 하는 일 없이 무료하고 손에 잡히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어딘가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친구 저 친구 찾아다니기도 해 보고 또 나보다 먼저 정년퇴임을 하고 개인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한테도 가서 점심도 같이 먹

고 해 보았으나, 그 사람도 환자를 보아야 겠기 때문에 그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해서 그곳에서 나오면 특별히 갈 데도 없다. 그래서 겨우 생각나는 것이 지하철이었다. 지하철은 65세 이상이면 무임승차이기 때문에 지하철 탈 생각이 문득 난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 오늘은 1호선 종점 인천공항도 가보고, 다음 날은 4호선 종점 시화공단도 가보고 하면서 소 일을 하다가 마침 후배 치과의사가 치과운영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해 와서 용기를 내어 지금 운영하는 치과를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다.

그래도 대학에 있다가 개인병원을 맡아서 환자를 대하는 것이 처음에는 여간 어색하지 않았지만 그럭저럭 2~3년을 지내니 이제는 일도 재미있고, 우선 내가 할 일이 생겼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집에서 아무 것도 안 할 때보다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그래도 마음에 위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대학에 일이 있어 일을 보고, 아끼는 후배 교수실에 들렀다가 후배 교수로부터 “언제 일을(치과를) 그만 두겠느냐?”는 말을 들은 것이다. 그리고 나라에서 65세가 정년이면 사회에서도 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참 당황하고 불쾌하였다.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해 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마치 “언제 죽으시렵니까?” 하는 말 같이 느껴졌다. 내가 과잉반응인가? 하여튼 내 마음이 몹시 언짢았다.

요즘 65세나 70세 난 사람들 어디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 볼 수 있느냐? 지금 60세, 70세는 과거에 50세 정도밖에 안 된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80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균 연령이 100세에 이를 것을 예상하면서 우리나라는 노령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65세에 정년을 하고 나서 80세까지 15년 동안을 죽음을 기다리기도 지루하고 그 기간을 그럼 무엇을 하고 지내야 하는가? 돈이 많으면 가끔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하고 하면 좋은 반면, 골프도 못 치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어 해외여행도 즐기지 못하고,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여유 있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가 없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도 자기 전공을 살려 사회 각 부분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러나 내가 전공한 분야는 대학에서나 필요하지, 대학을 떠나면 나의 전공은 사회에 나와서는 별로 부르는 곳이 없는 분야이다. 그렇다고 죽치고 집안에서 책만 들여다 보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오피스텔을 얻어 문학작품이나 쓰는 그런 소질도 없다. 하여튼 뭐 소일거리가 없다.

천만 다행으로 치과의사 면허가 있어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치과를 번두리 남한산성 밑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이 현실에 만족하고 생활하고 있다.

당신도 몇 년 더 지나면 65세 정년이 돌아온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참 빠르게 다가온다.

노인들에게는 가급적이면 “언제 일을 마감하겠느냐?” “일을 그만두시라”, “이제는 그만 쉬

시라” “이제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집에서 쉬시라” 하는 등의 말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은 나만 불쾌하게 느끼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얼마 전에 교회의 신도 중에 선교분과 위원회를 맡고 있는 60대의 지인이 50대 초반의 후배 교인이 “형님은 회장직을 언제까지 맡고 계시겠습니까?” 하고 묻더라는 것이다. 이 분도 나처럼 그 말을 듣고 몹시 불쾌하여 그 후배 교인을 나무랐다는 말을 들었다. 이 분은 성질이 몹시 급하고 괘씸하여 그 말을 듣자마자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처럼 남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남의 일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이 실례이기도 하다. “춘부장은 무얼 하시느냐?” “아드님은 어느 직장에 다니시느냐?” “자제분은 몇이시냐?” “자제분들은 결혼을 하였느냐?” 하여튼 관심이 많다.

물론 어른들한테 “안녕하십니까?” 하는 정도는 예의이지만 사실상 “아침밥(진지)은 드셨습니까?” 하는 인사도 있으나 그럼 “아침밥을 못 먹었다”고 하면 밥을 사 줄 것인가? 아침밥도 못 먹고 다니는 그런 초라한 인생으로 보이는가? 어떻게 보면 참 실례되는 인사말이다.

어떤 사회활동이 활발하였던 노인 한 분이 아들과 말다툼을 한 사례도 있다. 이 노인 어른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아침마다 열심히 밖으로 나가다니며 친구들도 만나시고 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별로 성사되는 일은 없어 보였다. 이런 노인 어른의 모습을 보던 40세가 넘는 아드님되는 분이 연로하신 부친께 “아버님 이제는 집에서 쉬세요. 뭐 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성사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하면서 아버지되시는 분께 충고랍시고 말씀을 드렸다. 이 어르신께서는 아드님 앞에서는 “그래” 하시고는 돌아서서는 실망이 많으셨단다. 이 아드님의 말을 듣고 아주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었던단다.

노인들에게는 마음은 젊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자기 자신의 몸이 늙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마음은 청춘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내가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이러한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사실상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용기를 더 북돋아 주는 말, 그러니까 “젊어 보이신다”든지 “건강하게 보이신다”든지 “근력이 좋으시다” 하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권장할만한 일인 것 같다.

“이젠 쉬시지요”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언제 그만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르신을 많이 생각해서 해 주는 말 같지만 이런 말을 듣는 노인 당사자는 불쾌하게 들리는 말이다.

이런 말을 듣는 당사자가 나이가 젊고 앞이 창창한 젊은이라면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생황혼기에 접어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피해야 할 말의 표현인 것 같다.